

언덕에 있는 장애인 체육센터 어떻게 가라고...

장애·비장애인 이용 남구 반다비 체육센터 장애인 동행해보니

백운동 월산근린공원 내 조성...차 없는 휠체어로 접근 불가
장애인 샤워실 태부족...관람석 경사로 설치 안돼 ‘그림의 떡’
광주 남구 “셔틀버스 운행 검토...헬스장 트레이너 상주시킬 것”

광주시 남구 반다비체육센터(센터) 준공식이 열린 15일 휠체어 장애인 배영준(27)씨는 센터에 도착하기 전부터 힘겨워했다. 남구는 무등산을 조망하는 입지를 내세웠지만 막상 휠체어 장애인들에게는 센터를 가는 것부터 고역이다.

결국 택시를 타고 센터를 찾은 배씨는 “이 곳은 차를 타지 않으면 휠체어 장애인들은 올 수 없을 것 같다”고 고개를 저었다.

장애·비장애인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공식 마스코트인 ‘반다비’의 이름을 딴 체육시설이다. 남구 센터는 개관 2개월을 앞두고 있지만 장애인

의 이용에 불편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장애인 기구 설치, 장애인 샤워시설 부족, 관람석 경사로 미설치 등 센터 곳곳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하 1층의 헬스장에는 23종의 헬스기구가 놓여 있지만 모두 비장애인을 위한 기구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 배씨의 설명이다.

기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좌석을 떼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센터의 설치된 기구는 장애인이 분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배 씨는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 웨이트장에 마련된 헬스기구는 장애인들의 좌석 탈부착이 편리한 기구로 이뤄져 있는데 이곳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기구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배영준씨가 광주 남구 백운동 남구 반다비 체육센터를 찾아 샤워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샤워기(점선 안)는 한 개에 불과했다(왼쪽). 배씨가 휠체어를 탑승한 상태에서 기구를 이용하기 위해 좌석 탈착을 시도하고 있다.

지상 1층에 마련된 수영장 샤워실도 문제였다. 장애인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족실’은 4곳이 있었지만 일반 샤워실 내에 있는 20개의 샤워기 중 장애인용 샤워기는 한 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샤워기는 비장애인 용 샤워기여서 앉은 자세로 샤워해야 하는 장애인 이용이 불가능했다.

관람석에는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아 장애인들은 관람이 불가능했다. 경기장 한 편에는 17명이 앉을 수 있는 관람석이 마련돼 있지만 휠체어가 이

동할 수 있는 공간은 없었다.

남구는 휠체어 장애인들은 관람석 아래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장애인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는 펜스 등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도 부족했다.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손잡이가 설치돼 있었지만 손잡이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촉지판이 붙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센터에서 이동이 불가능했

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남구는 3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남구 관계자는 “고지대에 있는 센터는 시 장애인 복지관 저상버스와 연계해 센터를 경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외 셔틀버스 등을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겠다”면서 “또 헬스장에는 트레이너를 상주시켜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돕겠다”고 설명했다.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글로벌大 지정에도...지방대 9곳, 정시지원 되레 줄었다

순천대 등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 여전히 어려워

지난해 11월 글로벌 대학으로 지정된 순천대 등 지방대학의 올해 정시 지원자 수가 전년도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들이 신입생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글로벌 대학 지원이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종로학원은 글로벌 대학 중 정시 선발이 없는 포항공대를 제외한 9개 대학의 2024학년도 대입 지원자 수를 분석한 결과 총 3만8774명으로 전년 4만308명 대비 1534명(3.8%) 줄었다고 밝혔다.

글로벌 대학은 정부가 비수도권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위해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다. 지난해 11월 충북대, 울산대, 부산대 등 10개 대학이 글로벌 대학으로 지정됐다.

글로벌 대학 지정에도 9개 대학 중 5개 대학의 지원자 수가 줄었다.

이 중 충북대가 지원자 847명(전년 대비 12.0%)이 줄면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어 강원대 647명(9.2%), 순천대 430명(22.0%), 울산대 187명(7.9%), 경상국립대 144명(2.9%) 순으로 지원자가 많이 줄었다.

9개 대학의 경쟁률은 평균 4.33대 1로 전년과 동일했다. 이들 대학이 올해 모집 정원을 총 367명 줄이면서 경쟁률이 유지된 것으로 분석된다.

경쟁률은 충북대가 6.01대 1(전년 6.57대 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림대 5.03대 1(전년 4.63대 1), 전북대 4.98대 1(전년 4.87대 1), 강원대 4.28대 1(전년 4.35대 1) 순이었다.

글로벌 대학 선정 후 경쟁률이 오른 곳도 있었다.

충북대와 공동 글로벌 대학으로 지정된 한국교통대학은 5.86대 1로 지난해(3.92대 1)보다 높아졌다. 부산대와 공동으로 지정된 부산교대도 3.06대 1로 지난해(1.79대 1)보다 올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역별 특성화대학 등 구체화한 계획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단순히 글로벌 대학 지정만으로는 수험생들이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전남 오늘 ‘반짝 한파’...수요일부터 비

아침 영하 7도까지 떨어져

광주·전남지역에 반짝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6일 광주·전남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0도로 내려가 평년 기온(영하 5.7~영하 0.2도)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낮부터 기온이 올라 낮 최고기온은 5~10도로 평년(4.2~7.8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날 대비 기온 하강 폭이 크진 않아 한파

특보는 발령되지 않았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해 3도 이하로 떨어지거나 평년 기온보다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번 한파는 오는 17일부터 누그러질 전망이다. 17일 아침최저기온 영하 3~3도, 낮 최고기온 7~11도로 기온이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져 밤 사이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비는 19일까지 3일 동안 내릴 것으로 관측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여수지역 건설업계 임금 체불 늘어

여수지역에서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은 감소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임금체불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여수고용노동지청(여수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여수, 순천, 고흥, 광양, 보성 등에서 신고된 임금체불액은 총 201억원에 달했다.

지난 2022년(237억원)보다 15.1% 감소했다. 임금 체불 신고 인원은 4303명으로 전년도(3268명)에 비해 늘었다.

개인 임금체불 금액은 줄었지만 임금을 못받은 노동자는 늘어난 것이다.

또 건설업 체불 임금 비중은 지난 2022년 26.7%였지만 지난해에는 30.9%로 증가했다.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

사비 증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 중심의 임금 체불이 증가했다는 것이 노동청의 분석이다.

여수노동청은 임금체불 없는 설명절을 위해 4주간(1월 15일~2월 8일)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건설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함께 상습·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한다는 것이다.

피해 노동자들이 설 전에 산이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응자 금리도 연1.5%에서 1%로 한시적으로 내린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교대 교수 ‘자기표절’ 의혹...연구윤리위 ‘임용취소’ 의전

지난해 광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에 채용된 교수의 전시 실적이 중복되고 자기 작품을 표절했다는 연구 윤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광주교대에 따르면 연구 윤리 본조사위원회는 공개채용 공고에 근거해 A 교수에 대해 ‘임용 취소’ 의견을 광주교대 총장과 연구 윤리위원회에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광주교대는 지난해 2학기 교수 채용 과정에서 미

술교육과 합격자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연구 윤리 본조사위원회를 열어 조사에 착수했다.

연구 윤리 본조사위원회는 개인전의 신작 비율이 70%를 넘겨야 하지만 A 교수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부당한 중복 게재’로 판정했다.

위원회는 또 지난해 A 교수가 전시회에서 선보인 한 작품이 2011년 발표한 작품과 같으며 ‘변조’로 판단했다.

A 교수는 본조사위원회 조사에서 부당한 중복게재와 변조 판단에 대해 미술 전시 현장의 특수성과 현대미술의 적용 불가능 등을 이유로 모든 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교대 관계자는 “연구 윤리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받고 있다”며 “이의 신청이 있으면 재조사하고, 없으면 총장에게 보고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소